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창세12, 1-4
[화답송] 시편33(32), 4-5, 18-19, 20과22(◎22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 2독서] 2티모1, 8-10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마태17, 1-9

성가	8시 미사	입당 119	봉헌 212 219	성체 156 166	파견 117
	11시 미사	입당 119	봉헌 212 219	성체 156 166	파견 117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사순 제2주일(3월 16일)		사순 제3주일(3월 23일)		사순 제4주일(3월 30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글라라(순희)	황테레사(혜정)	이바로로(명국)	이마리크레센시아
제 1 독서	김안드레아(찬곤)	최다니엘(대연)	이바로로(명국)	허라우렌시오(순구)	강요한(신호)	구미카엘(창희)
제 2 독서	김글라라(순희)	서테레사(춘애)	정스텔라(애리)	김테레사(승희)	김안젤라(영선)	이골롬바(정연)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거룩하게 변모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얼굴과 옷이 해처럼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태 17, 5)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복음에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복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삶의 많은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용서를 통해 죄인을 변화시키심으로써,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그리고 고통과 죽음을 부활과 영생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삶을 통해 드러난 이 힘 있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죄인으로 누명 씌우고 희생과 죽음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평생 사랑밖에 모르고 사셨던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그 삶으로 인해 오히려 죄수로 낙인 찍혀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억울한 죄수의 누명을 쓰고 참혹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서 눈부신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삶이 결코 죄수의 그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삶이었음을 거룩한 변모 사건이 증거 해주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언젠가 그분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분처럼 눈부시도록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마태오 복음 1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마태 13, 43)

이 사순시기, 당신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삶을 뒤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박문서 프란치스코 신부/
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겸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타볼 산에 오른 제자, 겿세마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기쁜 체험의 아름다운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축복의 기도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들에게도 시련이 닥치고 힘겨운 상황들이 비껴가지 않고 마주옵니다. 어떤 때는 위로조차 해 줄 수 없을 만큼 큰 짐을 지고 계신 분 앞에서 할 말이 뚝 막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순시기를 살면서 더욱 크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마태17,1)고 전합니다.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인지 타볼 산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최소 해발 600미터 정도의 타볼 산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마태 17,2) 그곳에서 제자들은 주님 영광의 모습에 취해서인지 평생 머물고 싶은 마음에 집까지 짓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산을 내려올 수밖에는 없었지요.

묘하게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겿세마니에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그 피땀 흘리는 처참한 순간에도 역시 세 제자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마태 26,37) 함께 하십니다. 겿세마니 동산에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세 제자의 이름만이 거론되었는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것은 바로 앞 복음 말씀에서(마태 16,13-19)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로서 당연한 것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제자였기에 당연한 것이고, 야고보는 44년경에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로 주님을 증거 하였으니(사도 12,1-2)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서는 같은 사람 셋을 아주 상반된 두 장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생각일지 모르지만, 타볼에 올랐으면 겿세마니에도 올라야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좋은 시간, 나쁜 시간을 나누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면 나 역시 두려움의 어떤 시간도 영광의 시간처럼 그분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암흑의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느껴야 합니다.

물론 타볼 산이 겿세마니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위안으로 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본 모습을 이미 타볼 산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겿세마니에 있다 하더라도 타볼 산에서 하셨던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7,7)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으로 생생히 기억합시다.

강귀석 신부
명일동성당 주임



추악하고 교약한 길에서
발길 돌리게 하시려고
당신 몸을 허물라 하십니다.

글_ 예레 18,23 참조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고통

한 신자 가정주부가 얼마 전 SNS 그룹채팅방을 통해 경험담을 적어 왔습니다.

“10일 전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하수구 철망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을 크게 다쳐 고생 중이다. 위험하다고 몇 번씩이나 관리실에 알려졌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내가 다치고 나서야 하수구를 고쳐놓는 것을 보고 원망스러웠다. 반깁스로 꼼짝 못한 채 집에서 지내던 중, 알고 지내는 의사의 권유로 정형외과에 입원하게 됐다. 남편이 직장을 오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다. 뼈는 다행히 괜찮았지만 인대가 늘어나서 불편한 게 많은 채로 퇴원을 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이번에는, 며칠 있으면 세 돌이 되는 둘째 아이가 의자를 잡다 쓰러져 순식간에 손바닥이 터져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다녀왔고, 이상일에 한 번씩 소독하러 병원에 다니고 있다. 어젯밤엔 초등학교생인 큰애가 혼자서 양치를 하다가 뒤에 있던 작은애의 눈을 칫솔로 찌르고 말았다. 다시 놀란 가슴을 안고 병원에 갈 아침을 기다리면서 ‘오, 하느님!’ 을 연거푸 부르짖고는 했다. 모든 것이 순간이었고, 일초 전에도 생각조차 못한 일이었다. 그나마 각막은 비껴가서 안약을 넣으라 했고, 손바닥도 새살이 돌아나기 시작했다. 아픈 애를 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큰애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 다리를 다치게 한 아파트 책임자를 용서해야지. ‘오,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이십니다’ (시편 16,2 참조)를 수없이 말씀드린 시간이었고, 피상적으로만 아파하던 예수님의 피멍을 조금이나마 체험한 시간이었다.”

연속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본의 아니게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생각하면서 ‘용서’ 를 생각하면 이 주부는 “기도를 청합니다. 고통 속에서 각 병원에서 소리 없이 장시간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순시기였으면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을 자주 만납니다. 가족이 다치거나 본인이 큰 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거나 물질적 빈곤으로 고생하는 이웃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만났을 때 집요하게 그 원인을 캐내려거나 분석하려 들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라고 성인들은 알려줍니다.

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창세 12,1)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고 기록한 오늘 독서와 “주님의 거룩한 변모’ (마태 17,1-9)를 들려준 복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감으로써 ‘또 다른 예수님’ 이 되어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가신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 오늘 저는 이웃의 짐을 져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최홍준 파비아노
방송작가
전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 목자의 소리

믿음의 사람은 충실하신 하느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 인간은 하느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어서
충실하게 되고, 하느님께서도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충실하시다. -

「신앙의 빛」 10항

가톨릭전례

창조하시는 하느님

1)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느님

성경과 사도신경은 하느님과 세상의 관계를 ‘창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창조의 하느님”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창조의 하느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종교들도 많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힌두교와 같은 동양 종교들은 창조주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동양 종교들은 하느님과 세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동양 종교들에 있어서는 자연이 곧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자연입니다. 자연 안에, 사람들 안에 신성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은 그분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품이 예술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 작품이 곧 예술가는 아닙니다.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세상과 하느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종교들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곧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이 자기 명상을 통해서 하느님께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느님을 닮았다고 해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느님을 어렵듯이 느낄 수는 있지만, 그분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하느님은 세상과 인간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그분은 신비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한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느님은 신비이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고 겸손되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2) 시작이요 목적이신 하느님

자연이 곧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동양 종교들은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질서와 세상살이는 항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순환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출발점도 없고, 목표도

없으며, 그러기에 발전이나 퇴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항상 돌고 도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처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습니다. 세상은 시작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목표점도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느님의 의도대로 발전하는 것이 창조된 세상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타락).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신론자들은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도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의미도 목적도 없습니다.** 이런 삶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하느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인간이 하느님께로부터 기원했고, 하느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미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3) 창조는 희망의 노래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창세 #1:1) 성경을 펼치자마자 마주치게 되는 이 구절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성경은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창조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승화**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전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게 된다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새로운 창조, 즉 부활의 삶을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무에서 창조하실 수 있으시므로, 성령을 통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영혼 생명을 주실 수도 있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로마 #4:17)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육신 생명을 주실 수도 있다.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이 생기게 하실 수 있으므로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빛을 주실 수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98항). -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3월 16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해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민토마스(경수)	김데레사
	연	이데레사(정순)	이안드레아(영길)
	연	조상님	정안토니오
	연	김중화	정데레사(해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해경)
	연	박준기	이시몬/올리엠타
	생	유케빈	유데레사
	생	이에리카 수녀님	이마리아
	생	이에리카 수녀님	이베로니카
	생	이마태오(영기)	7-1구역
	생	정로사(화봉)	성우술라
	생	유데레사	하늘의문 Pr.
	생	유데레사	황요셉피나
	생	유데레사	김데레사
	생	유데레사	8-1구역
	생	서데레사	8-1구역
	생	조엘리사벳(영순)	8-1구역
	생	조엘리사벳(영순)	김데레사
3월 18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문프란치스카	강미자
3월 19일 수	생	김요셉(태응)/마리아	김아네스(순이)
	생	유요셉	성루카/우술라
	생	이요셉(건용)	육아오스딩/아가다
	생	한요셉(치용)	육아오스딩/아가다
3월 20일 목	생	유데레사	정안드레아
3월 22일 토	생	모든왕이/고통속에있는이들	성령기도회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0	212	42	344
헌 금	\$671	\$1,258	\$61	\$1,990

< 교무금 > \$3,993

백승진(3) 양주석(1-3) 정경희(3) 염명련(2-3)
 서춘애(3) 팽현팔(2-3) 최은용(1-2) 정병구(3-4)
 정지문(3-4) 김영순(2-3) 김순이(3) 전숙희(3)
 송분학(3-4) 이흥구(3-4) 이종주(1-3) 최순일(3)
 김정복(3) 최윤기(3) 임윤택(3) 임희숙(1-2)
 김정탁(1-3) 박영실(3-4) 천종욱(3) 김영민(2-3)

< 성소후원금 > \$110

서춘애(3) 정병구(3-4) 김순이(3) 전숙희(3)
 송분학(3-4) 김정복(3) 박영실(3-4) 최윤기(3)
 임윤택(3)

< Bishop's Appeal > \$1,150

서춘애(5-6) 최윤기(3) 박영실(3-4) 김영민(1-3)
 이종규(1-12)

< 감사헌금 > -

< 2차 헌금 > \$813

< 부활초/꽃봉헌 >

홍제니 \$25 김순이 \$100 전문자 \$100

~~~~ 오늘 점심은 전골하우스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항 -

- ◆ 앞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 부활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 부활봉성체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 부활초/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뜨개질사랑회 : 3월 16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사목회의 : 3월 23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사순 영상 피정  
일시 : 3월 16일(오늘) 오후 1시 - 5시 30분  
참가비 : 무료(전신자 점심 제공)
- ◆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3월 23일(다음주) 중식 후 성당  
대상 : 레지오 전단원
- ◆ 빈첸시오 흘리스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3월 27일(목) 오후 4시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십시오.

| 봉사 활동 안내        |            |                  |
|-----------------|------------|------------------|
| 3월29일(토) 10시-5시 | 화단정리       | 평협소속회원 및 희망 봉사자  |
| 3월30일(일) 오후     | 화단정리 및 대청소 | 평협소속회원 및 봉사단체 회원 |

| 3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1-2장 |             |                   |
|--------------------|-------------|-------------------|
| 1 구역               | 3월22일(토) 5시 | 최윤정 멜라니 댁         |
| 2 구역               | 3월29일(토) 6시 | 이상주 카타리나 댁        |
| 4 구역               | 3월22일(토)6시반 | 이상우 마지아 댁         |
| 5 구역               | 3월30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6 구역               | 3월22일(토) 6시 | 이창용 레이몬드 댁        |
| 7-1구역              | 3월29일(토) 2시 | 파운더스 룸            |
| 7-2구역              | 3월22일(토) 5시 | 교육관 107호실         |
| 8-1구역              | 3월30일(일) 1시 | 교육관 106호실         |
| 8-2구역              | 3월29일(토) 6시 | Four Corners Room |
| 9 구역               | 3월29일(토) 6시 | 구태영 요셉 댁          |

- ◆ 본당 봉사자 지문 날인(오클랜드 교구 의무사항)  
일시 : 4월 6일(일) 오전 9시 ~ 11시  
스케줄 : 모든 사목위원 9시 ~ 10시  
          주일학교 교사 10시 ~ 11시
- ◆ 재활용 물건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일시 : 3월 30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가능한 물품 : 옷, 신발, 지갑, 벨트, 침대보, 이불 등  
주관 :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비영리단체  
(참고 : [www.thelittlevoiceproject.org](http://www.thelittlevoiceproject.org))
- ◆ 가톨릭 성서모임 창세기 연수  
일시 : 5월 31일(토) 오후 1시 ~ 6월 1일(일) 오후 5시  
대상 : 창세기 과정을 마친 분들  
참가비 : \$120  
장소 : Vallombrose Center, Menlo Park  
신청 : 백승진 미카엘 [sjbaek@gmail.com](mailto:sjbaek@gmail.com)
- ◆ 주일학교 초/중등부 여름 캠프(6,7월 중 숙박포함 1주일)  
남학생(7세~13세) : Camp St. Francis(Aptos, CA)  
여학생(6세~14세) : Camp Auxilium(Corrallitos, CA)  
후원 : 본당 대건장학회 주최 : 본당 주일학교  
\* 자세한 사항은 주일학교 가정통신문을 참조하세요.  
\* 4월 중순까지 1차 접수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일학교 소식                   |
|---------------------------|
| - 주일학교 11시                |
| - 영어미사 12시 10분(피정관계로 오늘만) |